

1) 1월(정월)

(1) 설날(元日·元旦·元初·歲首·年首·恒初·愼日)

1년의 첫날이며 새해 첫 출발일이다. 한 해의 처음인 정초에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삼가며 1년 농사의 풍년을 축원하는 날이다. 조상제사, 마을의 평안, 가족들의 강녕을 비는 날이며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가다듬는 날이다. 또한 혈연적인 유대를 다지고 지연적인 친화를 돈후하게 하는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다. 설날의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① 설 밥

남녀가 정초 아침에 설옷으로 갈아입는다. 어른 남자는 흰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그 위에다 검은 색 또는 흰색의 두루마기를 입는다. 부유한 사람은 도포를 걸쳤다. 남자아이들은 남색이나 붉은색이 섞인 바지, 저고리를 입었다. 부인들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으며, 간혹 붉은색이나 노랑저고리를 입는다. 여자아이들은 무명의 흰 저고리와 검정치마를 입거나 명주의 초록저고리와 남색치마, 검은 밤색 반회장저고리와 검정치마 등을 입었다.

② 차례

설 명절은 추석과 더불어 순천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기 때문에 차례 역시 성대하게 지내고 있다. 기제사와는 달리 차례에서는 조상신과 가택신을 제사하는 이중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즉 고조모, 증조모, 조모, 부모까지 4대 봉사를 하는 것과 함께 성조, 조상, 조왕, 터주대감, 철룽, 곳간신, 문신, 마구간신, 별신 등에도 세찬이나 간단한 소찬을 갖추어 제례를 지낸다. 또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상점이나 창고에,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은 공장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 선상에 따로 상을 장만하여 무탈과 번창을 빌었다.

특히 손이 없는 혼령을 모시면 복을 탄다고 하여 모시는 사람도 있다. 차례는 유교의 조상 숭배 제례와 민간신앙적인 의식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제사의 경우 장손의 집에서만 모시는 데 반해서 차례는 각 가정에서 조상신 외의 여러 신에게 제를 지내는 차이점이 있다.

한편 설 차례에 특기할 만한 것은 떡국을 진설했다가 다음에 메를 지어 다시 올리는 것이다. 물론 형편과 정성에 따라서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제야와 새벽, 두 번에 걸쳐 지낸다. 본디 명절에는 제사와 달리 새벽에 차례를 모시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유 신앙인 불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듯하다.

③ 성묘와 세배

설날 아침이 되면 자손들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한다. 차례와 마찬가지로 새벽 일찍 새로 장만한 음식을 묘 앞에 차려놓고 자손들이 조상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성묘를 위해 따로 음식을 장만하지는 않고, 과일과 술만을 가지고 가서 성묘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이 가까워지면 고향을 떠나 있던 사람들도 고향을 찾아가 성묘를 하고 친지와도 만나는 등 수직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풍속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이 귀소본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명절이 되면 이런 연유로 귀성객이 물결을 이루는 것이다. 성묘를 다녀온 후 집안 어른이나

이웃의 웃어른을 찾아가 새해 인사를 올리는데 이것을 세배라 한다. 이날은 모두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마음의 때를 벗기는데, 이때 입는 옷을 설빔 또는 세장(歲粧)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세배를 다닐 때 동년배의 친척이나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다. 몇 명씩 무리를 지어 마을어른을 찾아 뵙고 인사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은 웃어른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는 의미가 있다. 어린이들은 설빔으로 곱게 차려 입고 웃어른께 세배를 올리는데, 이때 복돈이라 하여 세뱃돈을 주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세배를 오는 젊은이들에게 세찬과 세주를 대접하기도 한다. 세배를 할 때나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람과 경하 또는 기원의 말, 즉 덕담을 주고받는다.

“만수무강 하십시오.”

“00 시험에 꼭 합격하게.”

이것이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덕담이며, 이런 풍속 중에는 장래에 있을 일이 이미 이루어지기라도 한 듯이 친구들 사이에서,

“손자를 보았다면서.”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하고 말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언령 주술로서 기원의 마음을 주고받는 흐뭇한 풍속이다.

④ 세찬과 세주

설 음식으로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떡국이다. 『통국세기』에서도 이것으로 차례를 지내고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였다. 지금도 시식으로 반드시 떡국을 먹는데 이를 먹어야 비로소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다고 한다. 본래는 꿩고기를 넣어 끓였으나 지금은 쇠고기나 닭고기로 대신하고 있다. 속담에 ‘꿩 대신 닭’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떡국 이외에도 만두국을 만들어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먹기도 한다.

설에는 세주라 하여, 옛날에는 가정에서 만들어 썼다. 지금은 단속이 심하고 복잡해서 가정주를 담그는 일이 없지만 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특히 농주를 담그면 청주로서 차례를 지내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도 한다. 세찬으로는 육류, 어류, 삼채, 삼과, 떡 등을 장만하여 사용한다. 육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쓰이며 어류는 대개 평소에 마른 고기를 마련하여 사용하지만 생선을 구워서 사용한다. 나물 역시 봄, 여름, 가을에 준비해두었던 것을 쓰고 더불어서 콩나물, 녹두나물을 집에서 길러 쓰는 것이 농가에서는 보편적이다. 겨울에도 흔히 얻을 수 있는 배추나 무나물도 만든다. 특히 차례 음식을 만들 때는 정결히 하고자 하여 맛을 보지 않으며,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맛을 보지 않고 만든 음식은 차례를 모시고 난 다음 다시 양념을 하여 먹는 경우도 많다.

⑤ 정초의 휴가

오늘날에도 설을 전후해 정초에 휴가를 보내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7일간, 조선에서는 3일간 회무를 쉬었다고 한다. 민가에서 설날을 즈음하여 며칠간 쉬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다. 지금도 상가에서는 상점의 문을 조사할까지 닫으며, 많은 공장들이 종업원에게 휴가를 주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농한기를 맞아 한가한 시간을 갖는다. 이런 휴가의 의미는 반드시 특정한 어떤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기로까지 전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초에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초하룻날 빨래나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된다, 나무를 하러 가서는 안 된다 등 일진별로 쉬게 하는 속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해를 맞는 마음을 단정히 하는 한편 그간의 피로를 씻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차

분히 지내는 것과 함께 조상과 웃어른을 섬기는 기간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휴가 기간에 타향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고향을 찾는 것처럼, 시가에서 고생하던 며느리도 이때는 친정에 가서 며칠 동안 지내기도 한다. 며느리가 친정에 갈 때는 형편에 따라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보통이다. 떡, 고기 등을 주로 보내며 며느리가 시가에 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바지를 가져온다. 이바지라고 하는 말은 '입'과 '밭다'의 명사형으로 선물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선 양가의 흥과 허물을 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을 근친 또는 귀녕이라 하며, 친정의 부모와 가족을 만나고 처녀 때의 친구들과 정담을 나누거나 놀이를 하면서 옛정을 새롭게 한다.

⑥ 복조리

그믐날 밤이나 설날 새벽 또는 대보름 새벽에 쌀알을 일어 담듯 복을 굵어 담는다는 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둔다. 복조리는 주로 산죽으로 만드는데 지리산 것이 좋다. 조리를 파는 사람은 한 쌍을 담장 안으로 던져놓고 다음날에 돈을 달라고 청한다. 이는 초하룻날 돈을 내지 않는 풍습에 따른 것이다. 조리를 많이 살수록 집안에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여 몇 쌍을 사서 주로 큰방 문설주에 엮전 몇 닢을 넣어 걸어둔다. 새로 집을 짓거나 배를 만들 때도 조리를 사거나 선물로 받아 걸어둔다.

⑦ 삼재 막는 법(삼재면법)

남녀의 나이에 삼재가 든 사람은 설날 아침에 세 마리의 매(삼도일체)를 그려서 문설주에 붙이거나 삼재부적을 그려 붙인다. 삼재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巳)·유(酉)·축생(丑生)은 해(亥)·자(子)·축년(丑年)에, 신(申)·자(子)·진생(辰生)은 인(寅)·묘(卯)·진년(辰年)에, 해(亥)·묘(卯)·미생(未生)은 사(巳)·오(午)·미년(未年)에, 인(寅)·오(午)·술생(戌生)은 신(申)·유(酉)·술년(戌年)에 삼재가 든다.

⑧ 세 화

명가 집안에 있었던 풍습으로 환쟁이를 불리 그림을 그리게 하여 집 안에 붙이기도 하고 선물도 했다.

⑨ 머리카락 사르기(원일소발)

1년 동안 머리를 빗다가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두었다가 설날 황혼에 문밖에서 태워 1년간의 액과 살을 물리친다. 또한 뇌성벽력이 칠 때 마루나 문 앞에서 머리카락을 태워 그 냄새를 집 안 사방에 퍼지게 하여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이 든 어른의 머리카락은 함부로 밟지 않으며 모아두었다가 돌아가신 후 관 속에 함께 넣는다.

⑩ 승도 베풀기

중들이 정초에 또는 설날에 거리로 나와 목탁이나 북을 치며 돌아다닌다. 민가에서는 쌀과 돈을 내어준다.

⑪ 신 감추기

설날 밤에 야광이라는 귀신이 아이들의 신발을 신고 가버린다고 하여 일찍 불을 끄고 신발을

감추고 잔다. 신을 잃어버리면 불길하며 재수가 없다고 한다.

⑫ 털 있는 날과 털 없는 날(유모일과 무모일)

12간지 중에서 용·뱀은 털 없는 날이고, 쥐·소·호랑이·토끼·말·염소·원숭이·닭·개·돼지는 털 있는 날이다. 설날이 털 있는 날이면 풍년이 든다.